

옆에 사랑하는사람이 없다면 삶 자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쳐 침몰하는 과정은 영화로 재연됐습니다. 하지만 영화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이등 항해사 '찰스·레이틀러'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찰스·레이틀러'씨의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입니다. 선장이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없었습니다. '레이틀러'씨는 평생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있던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 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던 애스터 IV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이러브 유!”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애스터'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애스터'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애스터'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10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 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체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씨가 아내에게 전해준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미국 메이시(Macy's) 백화점 창업자 '슈트라우스'씨는 세계 2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씨는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씨에게 “누구도 어른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의 아내 '로잘리'씨의 팔을 잡고 의연하게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에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프랑스 상인 '와트열'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파스'씨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 신문가 '헨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오부어' 등 사회의 저명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이등 항해사 '레이틀러' 외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번 연산사 '존·필립스'씨는 여전히 전선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트'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십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견조한 선박회사 'White Star Line'는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Unsinkable’의 저자 '다니엘 알란 버틀러'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책임감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삶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고 혼자 남겨져 돈과 유산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혹은 삶의 어떤 고난과 마주친다 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매일 만사에 허덕이는 우리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아니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며, 잊었던 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좋은일만 있을겁니다.

〈 3면으로 계속 〉

- 글 / 부제 최승웅 미카엘 < 출처 / 북미 한인 종신부제 협의회 〉

부활 제 2 주일

2024년
04월 0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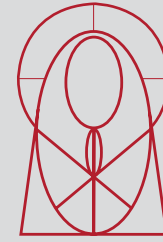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화-금요일
(10:30AM~3: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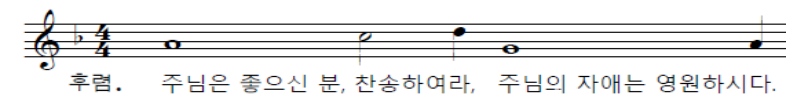


〈 Bartolo di Fredi, Joseph's dream (요셉의 꿈), 1367 〉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4, 32-35
화답송 시편 118(117),2-4.16-18.22-24(© 1)

24. 4. 7. 부활 제2주일



후렴.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독서 요한 1서 5,1-6
복음 환호송 요한 20, 29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복음 20,19-31
성가 입당 136 봉헌 215, 200 성체 182, 498 파견 134

성당 소식

미사지향 (연미사)

- 방대권(도밍고), 임막달래나, 김마리아 - 임영자(안나)
- 고미야(마리아) - 오현주(요한)
- 김정하(로사) -염 세실리아
- 김진철(요한) -가족
- 선점환(마리아) -가족
- 감명자(헬레나) -가족
- 백봉화 - 한상철(빈첸시오)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이준원(오도), 주혜윤(엘리사벳)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 이준원(오도), 주혜윤(엘리사벳)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윤 날리 - 가족
- 오애희(율리아나)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김삼식(베드로) - 가족, 박병태(가브리엘)
- 오애희(율리안나) - 가족
- 채점마 - 가족
- 한지혜(크리스티나) - 이서영(요안나)
- 방상호(요한), 방영숙(로사),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김삼식(베드로), 하용무(테레사) - 임영자(안나)
- 유베네딕토, 율리안나, 박요아킴, 안나, 이헬레나, 콰유리안나 - 오현주(요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3/31 주일 헌금 (215명).....\$1,282
- 부활감사헌금 합계.....\$5,505
유용희, 이용문, 박화성, 김수완, 이안나, 서영원, 손홍구, 강성기, 은식, 염기선, 최승웅부제님, 김영필, 채희백, 최영옥, 곽신규, 이레느, 서정근, 최완준, 이광호, 황분숙, 이대우, 박재영, 황태진, 전옥주, 이은아, 윤안젤라, 오경선, 방숙자, 안을봉, 임문수, 임영자, 최레지나
- 교무금 합계.....\$1390
염기선(4-5) 이실현(4-7) 최현지(1-2) 임문수(3-4)
최영찬(3-4) 허정(3) 임영자(3-4)

미사에 참례할 때에는 항상,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읽고 묵상한 후에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요한 형제님께서 오는 5/3 금요일 오후 4시에 메타천에 있는 St. Francis of Assisi 성당에서 부제로 임명되십니다. 교우분들의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아나)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썬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성당 창문 열으셨다면 이용후 꼭 닫고 잠가주시고, 히터와 에어컨 이용후에는 항상 원래의 스위치로 돌려놓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차 헌금

- 4월 7일 : 유틸리티

빵과 포도주 봉헌

- 4/7 윤준희 구윤미 4/14 황우식 송재란
- 4/21 이광재 소나영 4/28 나채국 김민주

친교 봉사 일정

- 4/21 텃거스 • 5/19 노스브런스워 • 6/16 노스에디슨+메타천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3/22까지 약정된 금액은\$14,908 (목표금액의 59.7%) 입니다.

기획분과 회의: 4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꾸리아 월례회의: 4월 14일(주일) 미사 후 찬교실 회의실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 4월 28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 문의 : 단제장(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노스에디슨 구역모임 (구역장 : 이광호 다니엘)

- 일시 : 4월 5일(금) 오후 12시 30분
- 문의 : 서경희(피아) 732-668-5756

에디슨 구역모임 (구역장 : 성순영 라파엘라)

- 일시 및 장소 : 4월 7일 (주일) 미사 후 염기선(베드로) 형제님 댁

메타천 교구청 주관 다민족 문화 행사

- 일시 : 4월 20일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소 : 메타천 주교좌 St. Frances of Assisi 대성당
- 다민족 행사에 참여/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4월부터 사무실 근무 시간이 화- 금,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당 내에서는 가급적 정숙하여 주시고, 미사 전에는 핸드폰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2024 에디슨 성당 탁구대회

- 일시 : 4월21일 미사후
- 장소 : 친교실
- 참가비 : \$5
- 경기방식 : 남자부 여자부
- 대상 : 모든 교우

말씀번역

제1독서: 사도행전 4, 32-35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요한 1서5,1-6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 20, 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에타천 교구 공지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

** 주보 4면으로부터 계속되는 신자 칼럼입니다 **

My Heart Will Go On - Celine Dion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d hold to
In my life, we'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why does the heart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You're here, there's nothing I fear
And I know that my heart will go on
We'll stay forever this way
You are saf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